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2.2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무역 및 건설 지표로 보는 미국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형: 인공지능 인프라(IT 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지속

-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촉발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하드웨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미국 AI 인프라 확장 사업은 초대형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MSFT, GOOGL, ORCL, META, AMZN 등)의 자본지출 컨센서스는 연초 5,578억 달러에서 6,782억 달러로 21.6% 상향됐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의 대부분을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는 서버, 40%는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킹에 투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자본지출의 2/3을 단기 자산(IT 장비)에 집행했다고 한다.
- 미국의 수출입 지표와 건설지표도 데이터센터 및 IT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지지한다. 1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703억 달러다. 전년 대비 상품 수입은 7월을 제외하고 6월부터 매월 감소했지만, 수입 항목 중 자본재는 연초부터 매월 증가했다. 9월을 제외하고 매달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타났다. 세부 품목 중 매월 전년보다 많이 수입한 제품은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주변기기), 발전기, 통신장비 등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핵심 제품들이다. 내부 생산이 제한적인 미국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 높은 대만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YoY)도 하드웨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준다.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연초부터 두 자릿수 이상 확대됐고, 10월부턴 세 자릿수 YoY 성장률을 보였다. 수입 품목 중 컴퓨터도 10월부터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률이 나타난다. 엔비디아와 AMD 등의 고성능 반도체(가속기 등)는 대만의 TSMC에서 생산된 후 폭스콘, 콴타, 위스트론 등 대만이나 멕시코에 위치한 ODM 업체로 보내져 서버로 만들어진다. 완성된 제품은 서버 랙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기 때문이다.
- 미국의 자본재 수출도 매월 증가했다. 자본재 중 연초부터 매달 전년 대비 수출이 확대된 품목은 민항기, 민항기 엔진, 컴퓨터, 컴퓨터 액세서리 등이다. 통신장비도 8월 한 달을 제외하고 매월 전년보다 수출이 늘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의 베이스 캠프이자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7월 AI Full Stack Package를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의 AI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있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가들도 미국의 AI 인프라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초대형 기술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바통을 전 세계 국가들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건설 지표도 장기자산(건물 등)보단 단기자산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민간 건설 연구기관인 Dodge Construction Networks*의 1월 건설 계획(Dodge Momentum Index)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상업용 건설 계획은 YoY +26%, 기관 건설 계획은 YoY +34%다. 전월과 비교하면 전체 지수가 6.4% 감소했는데, 지수를 견인하던 상업 부문이 12월보다 7.1% 둔화됐기 때문이다. 전월 대비로는 위축됐으나, 여전히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은 양호하다. 전년 대비 상업용 건설 계획은 데이터센터를 제외하면 17% 증가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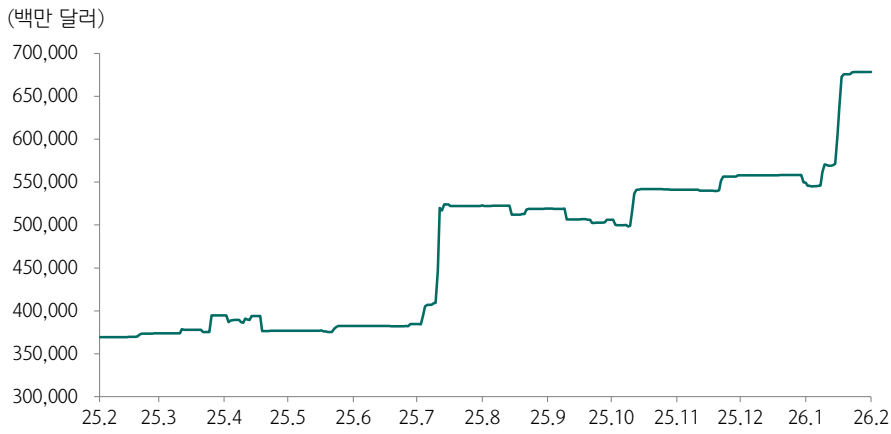
- 건설 계획과 달리 건설 착공 지수(Dodge Construction Starts)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1월 건설 착공 지수는 1조 2,420억 달러(YoY +9.7%)다. 세부 항목의 수치는 비주거용 건설 착공 3,780억 달러(YoY -3.7%), 주거용 건설 착공 3,450억 달러(YoY -14.9%), 인프라 및 토목(Non-Building) 5,220억 달러(YoY +56.3%) 등이다. 건설 착공 지수를 견인하던 하나의 축인 비주거용 건설 착공이 부진했다. 꾸준히 확장하고 있던 데이터센터 건설이 쉬었기 때문이다(MoM -52.2%). 1월 착공된 주요 대형 비주거용 건물 프로젝트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요크의 QTS CLT1 데이터센터(1단계, 7억 1,400만 달러), 뉴욕주의 장로교 암센터(12억 달러), 애리조나주의 엠코(Amkor) 첨단 패키징 공장(1단계, 10억 달러) 등이 있다.
- 건설 착공 지수는 소수의 프로젝트가 견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데이터센터 투자 초기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투자 초기 비용이 가장 크며, IT 장비에 전체 초기 투입 비용 중 72.9%가 들어간다. 미국 및 중국 정도를 제외하곤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첨단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진한 주가로 단기적 투자심리 위축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털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하드웨어 기업들의 변동성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민간 조사업체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도 2014년부터 건설 지출(Construction Spending) 데이터 중 데이터센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9월 셧다운 이후 일부 데이터가 불안정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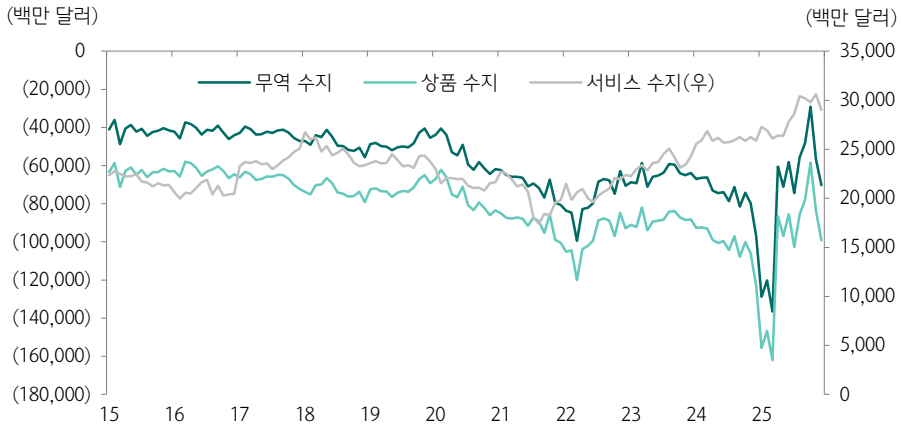
플랫폼 기업들의 2026년 자본지출 전망 상향 중

도표 1. 플랫폼 기업들(MSFT, ORCL, GOOGL, AMZN, META)의 2026년 자본지출 전망



자료: Blooberg, 하나증권

도표 2. 미국의 무역 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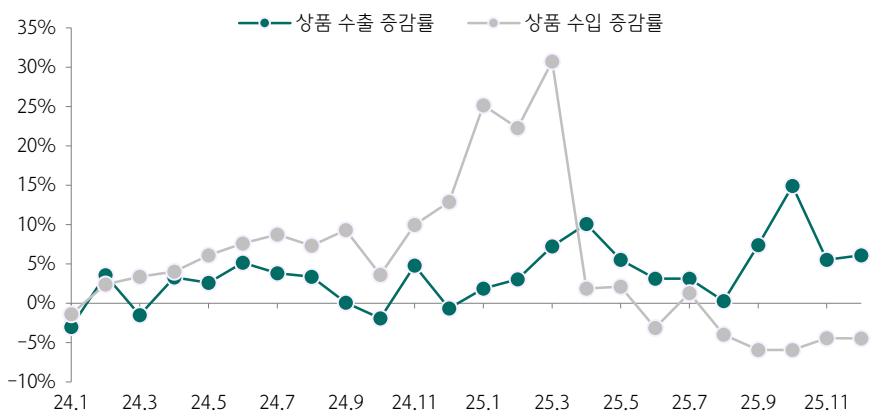


자료: Census, 하나증권

7월 제외 미국의
수입은 6월 이후
계속 감소

* 트럼프가 당선된
2024년 11월부터
수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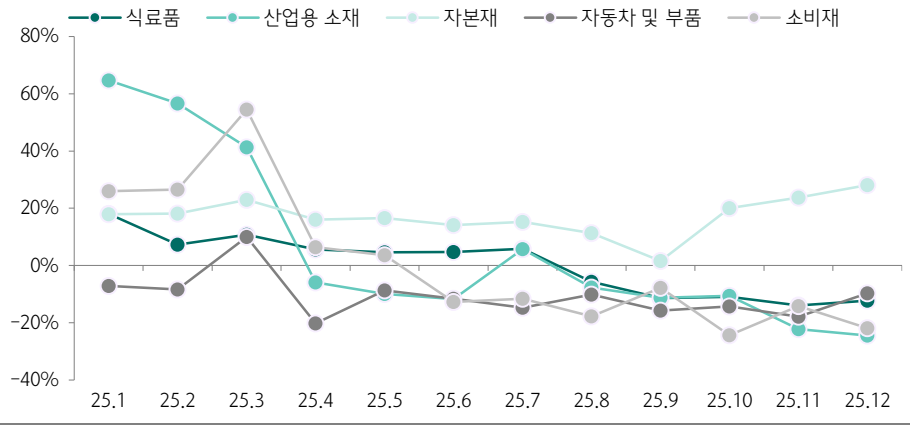
도표 3. 미국의 상품 수출/수입 증감률 YoY 추이



자료: Census, 하나증권

미국 수입이
6월부터 부진했음에도
재본재 수입은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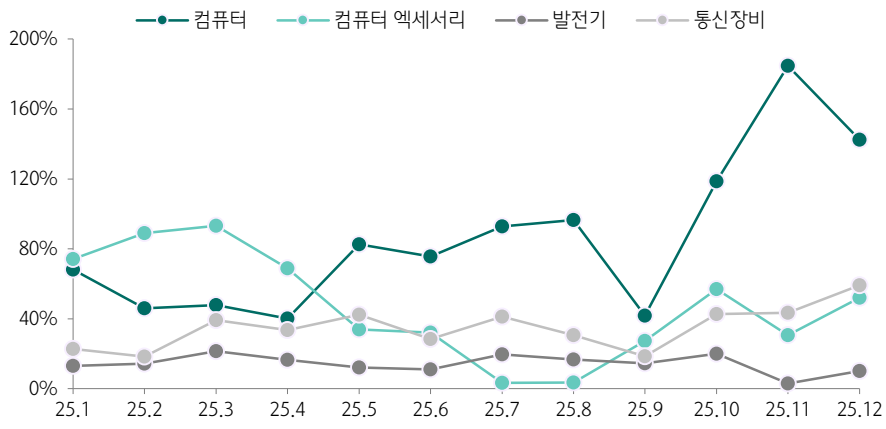
도표 4. 미국의 상품 품목별 수입 증감률 추이



자료: Census, 하나증권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부품들의 꾸준한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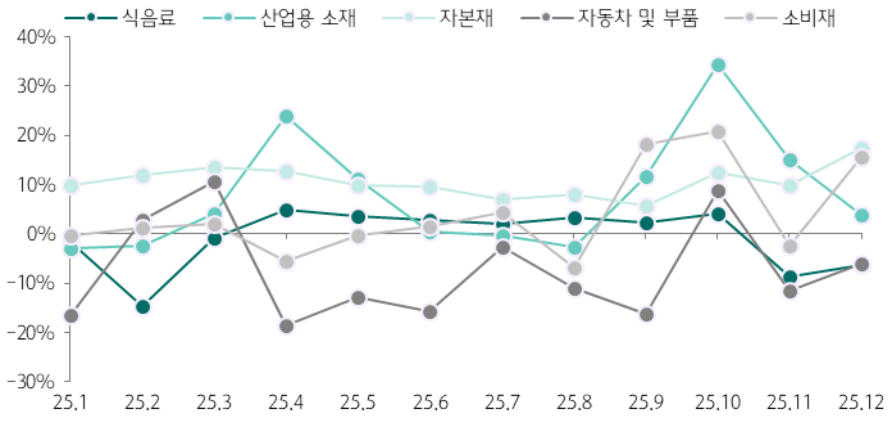
도표 5. 자본재 중 연초부터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한 상품 수입 증감률 추이



자료: Census, 하나증권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 품목 중 자본재 수출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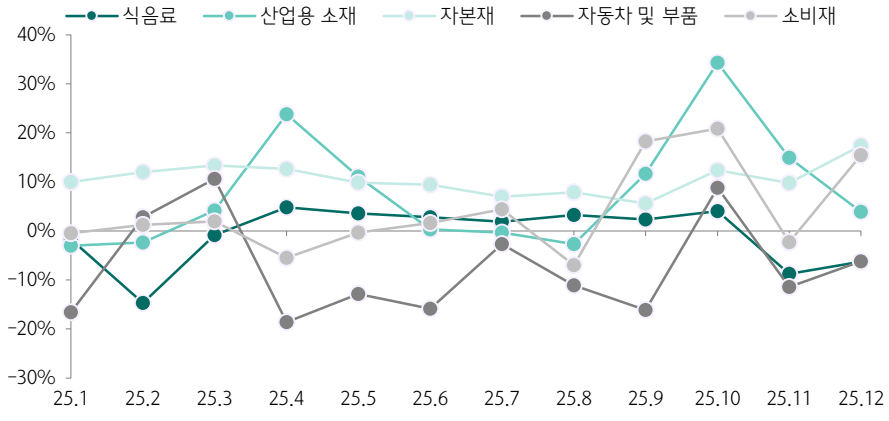
도표 6. 미국의 상품 품목별 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Census, 하나증권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부품들의 꾸준한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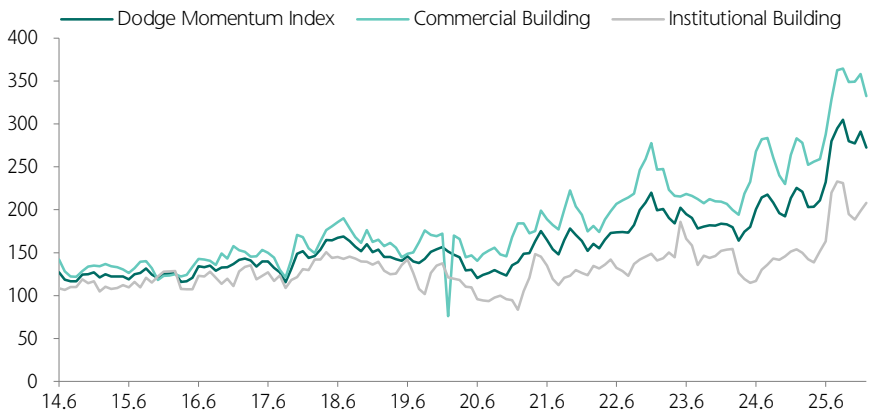
도표 7. 자본재 중 연초부터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한 상품 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Census, 하나증권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는 미국의 건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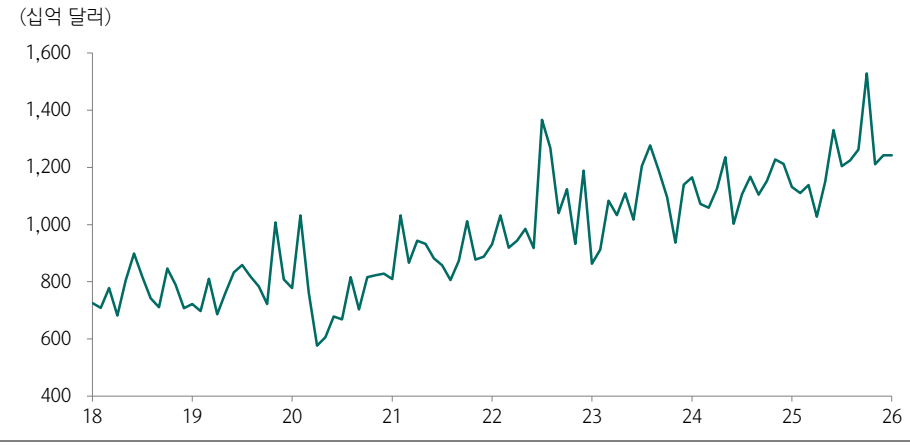
도표 8. 미국의 건설 계획 지표(Dodge Momentum Index)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역사적 고점 수준인
계획과 달리
건설은 아직 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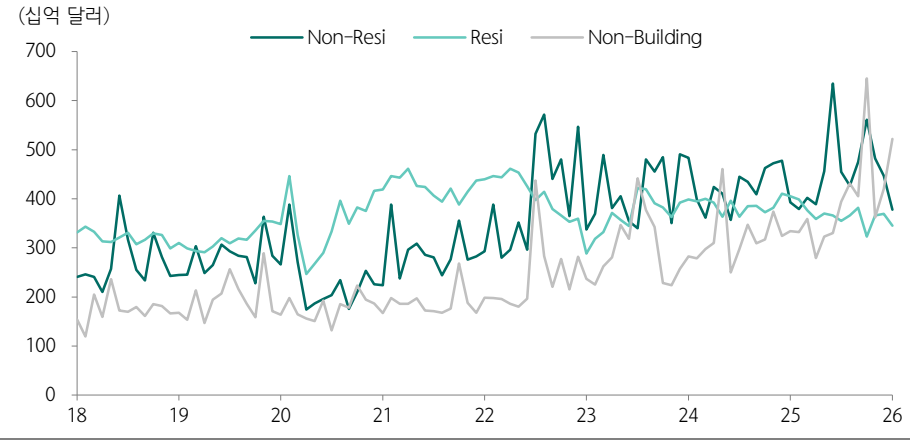
도표 9. 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Dodge Construction Start)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데이터센터가 쉬어가면서
비주거용 건설착공
(Non-Residential)
부진

도표 9. 미국의 건설 착공 지표(Dodge Construction Start) 세부 항목



자료: Dodge Construction Networks,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2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2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